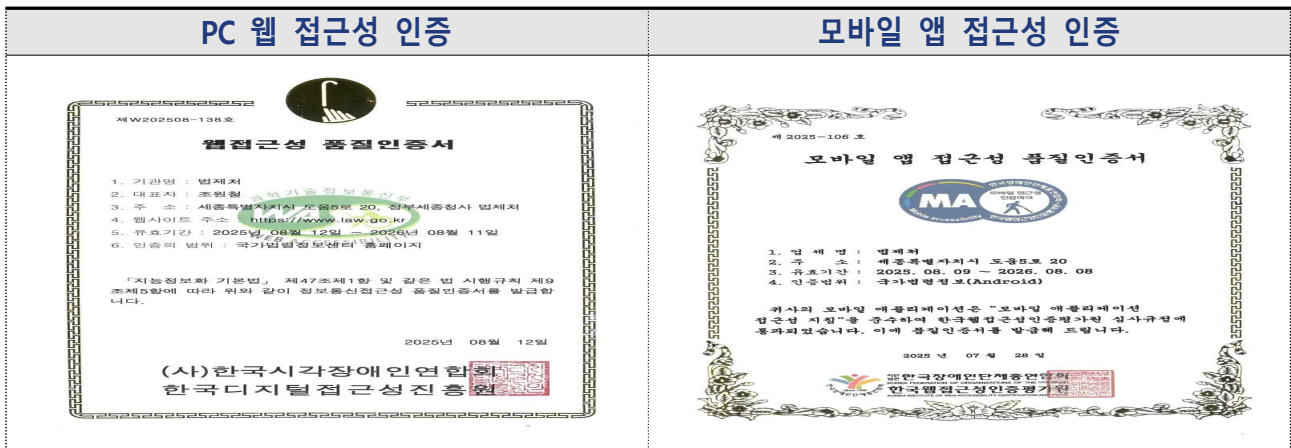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받다!

- 웹,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3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과 장	오청미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김준래	(044-200-6786)

